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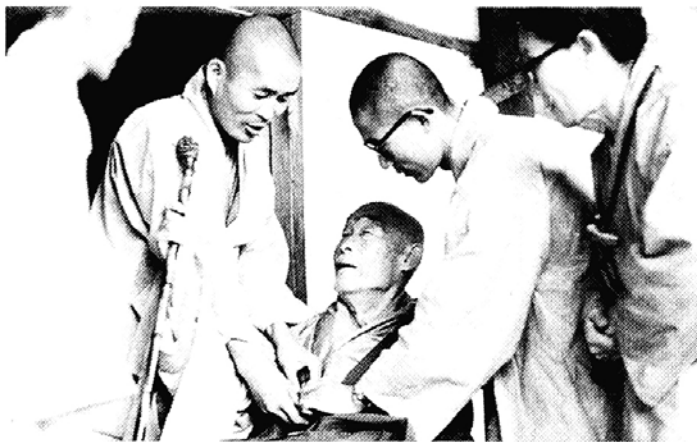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의 출가를 합시다

見泰深清 性禪者 何若無東 得如停流 是時水

호봉스님이 원명스님에게 내린 친필선경어. 1962년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조실 호봉스님(사진 가운데)을 시봉하는 원명스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동으로 흐르는 저 물도 도도히 멈추지 않네 참선을 이같이 하면 전성이 어찌 더딜까”



고 수행해오지만 너무나 커서 제대로 흥내 내기도 쉽지 않더군요. 돌을 닦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 합니다. 출가에는 몸으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절에 들어가서 삭발을 하고 장삼가사를 수하는 것은 몸의 출가요, 탐진치 삼독을 여의는 것은 마음의 출가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출가라 할 수 있겠지요. 몸만 출가하고 마음은 탐진치로 가득차 있다면 이는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것과 같아서 영원히 코끼리의 상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상 세간에서 처차식을 거느리고는 마음의 출가를 이루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경지로 가는 과정에는 50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살10지(地)

인과 믿고 계율 지키며 일념 정진해야 효는 백행의 근본이며 사람됨됨이 척도

“아주머니, 사실은 집사람이 어머니를 싫어하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자주 집을 나가시는데 아주머니께서 모셔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물론 집을 한채 사드리겠습니다.”

효심과 함께 삶의 좌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하심(下心)입니다. 구산스님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대 일반신도들에게도 늘 문화를 개방하셨는데 이러한 개방성은 국경도 뛰어넘어 후일 송광사에 국내 최초의 국제선원을 개원하는 근본 소인(素因)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79년 가을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법문을 모아 'Nine Mountains(=九山)'를 출간하셨고 미국 LA에 고려사를 개원하셨습니다. 이런 스님은 자신을 돌사자(石獅子)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조계산 숲속에서 깨달았으나 매다가 오가는 운수남자들의 묻는 말에 응답이나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인간의 행로를 불으면 방향을 가르쳐주는 ‘네거리의 돌사자’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시는 것입니다. 이같은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평생 담

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8지까지는 올라가야 주변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남녀간의 애정행위의 결과로 생긴것인 만큼 애욕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자들은 어머니 손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고분고분한 여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내가 대들거나 불아부치면 남편은 밖에서라도 기를 피지 못하게 되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세간에서 도를 깨치기란 무척 어렵지만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도반이나 스승같은 배우자를 만난다면 가정이 곧 수행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보면 마음에 애증이 여의고 복잡한 사랑을 놓아버린자가 진정한 출가사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68년도에 이곳 관음사 주지로 왔는데 당시 세네기 보살이던 사람들이 이

나의 수행일기



조 정 봉

(서울시청 불심회장)

1980년 봄은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였다. 동작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나는 직장에서는 사경의 태풍으로 공직기관에 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여기에 가정의 우환까지 겹쳐 이래저래 고달픈 시간의 연속이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나는 흥미있는 책으로나마 어려운 고비를 넘겨 볼 생각으로 퇴근길 서점 문을 두드렸다. 마땅한 책을 선택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나에게 서점주인은 한용운스님의 <불교대전>을 불속 내밀었다.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하여 구입했지만 막상 책장을 넘겨 보니 생소한 불교용어들이 어지럽게 했다. 처음에는 대충보아 넘기려고 했으나 웬지 손길이 자주 갔다. 게다가 고액의 책값을 생각하니 독파해야겠다는 욕심이 났다. 결국 불

책방서 '불교대전' 만남이 불법인연 구청 불자모임 심의회 결성 신행

교용어의 이해를 위해 불교사전을 구입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난해한 불교용어들의 뜻을 하나씩 이해해가며 읽는 재미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졌고 마음의 안정도 되찾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800쪽의 이 책을 읽는 동안 만생각을 잊어 버렸다. 마지막 책장을 넘기는 했지만 생각나는 것은 팔정도(八正道)뿐 그저 허공속에서 떠있는 기분이었다. 그 무렵 각 구청 부서별로 독후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사회정화위원회의 지시가 있었다. 우리 부서에서는 우연히 내가 결정되어 <불교대전>을 제목으로 팔정도 사상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 제출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선택하며 강연 준비를 하고 상을 받으러 오라는 전갈이 왔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내가 대중일 단상에서 어떻게 팔정도를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같았다. 며칠을 두고 고민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안철부절하던차에 수개월전 어떤 노신사가 나에게 대행스님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 기억났다. 나는 즉시 대행스님을 찾아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설교하면 되겠느냐



또 무엇인가. 나는 불교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는데 세상은 참 묘한 것이구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안다니. 별 화한 한 일이 다 일어난구나. 정말 웃음이 나왔다.

결국 7월 무더웠던 10여명의 직원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신행생활에 목말라 있는 사람처럼 모두들 적극적이었고, 그 자리에서 불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나를 회장으로 하는 것이었다. 불교를 모르는 자가 불교모임 회장을 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지만 도리가 없었다. 그후 우리들은 창립을 위해 수시로 모임을 가졌다. 단체인임을 무엇으로 하고, 창립법회는 어디서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다가 고명한 스님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나는 다시 대행스님을 찾아가 불자모임의 배경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이때도 가부좌를 하고 한동안 계시더니 모임이름을 '심월회(心月會)'로 하고 창립법회는 한마음선원에서 하라는 것이었다. 무렵엔 여름날 불자공무원 48명이 모여 한마음선원에서 창립법회를 열었다. 나는 이렇게 불교에 입문해 신행생활을 하게 되었다.

생활역학 및 사주 명리학 강좌 수강생 모집. 교재 - 사주청해 1권·2권 저자 최학림. 본 보현정사에서 드디어 저자 최학림 스님께서 강좌를 개설하여 기초부터 완성까지 직접 책임지도함. 선착순 10명 모집합니다. 본교재 사주정해 1권·2권은 원광대학교 역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스님들은 특별지도합니다. 개강일시: 1999년 6월 17일 오후 2시. 기간: 주2회 매주 화, 목 오후 2시~4시 (3개월 과정). 장소: 보현정사. 보현정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61번지 24/3 (상계4동 동사무소에서 200m거리) 문의전화 (02)952-7229

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강의. 설법방법·교수기법·설기훈련. 說法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성격 좋고 화술이 능해야 합니다. ○이론과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격, 가치관의 체계화 ○자료의 재구성 능력 확보 ○설법, 강의, 강연, 화술, 사회, 회의진행 ○음성, 태도, 수사(修辭) 원고작성, 상담기법 등 연수안내: 기간: 2개월 과정. 강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접수. 사후관리: 정회원 대우(매달 1회 모임). 장소: 본연수원 강의실. 지도교수: 김철술 박사. 문의 및 신청: 02)737-1567 / 725-1357 FAX (02)737-8725.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솔잎식초. ★발명특허 획득 제 065147호★. 식초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초의 영양가는 원료나 제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솔잎식초는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소나무(赤松)에서 채취한 토종솔잎만을 전통공기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순수 자연발효공법으로 숙성시켰으며, 깊고 은은한 맛과 향은 식초를 처음 대하시는 분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독특한 제품입니다. 제품명: 솔잎양조식초. 영양허가: 여주제20호. 원료명: 솔잎 100%. 종산도: 4°. 용량: 1.5l. 온라인: 국민은행 023-05-0035-409 김성경. 제조원: 삼승식품. 문의: 솔잎건강연구소. 휴대폰 011-389-9595, 전화 (02)2296-5151

불·교·사·찰·안·내 간판 시공. 규격: - 종로구 80cm x 40cm. - 그외 지역 110cm x 55cm. - 개인소유지: 제한없음. 재질: 스텐레스. 허가 대행 및 A/S. 취급 품목: 사찰 안내간판, 사찰 연력판, 천주송 간판, 계시판, 연등천기배선. 1차 설치되어 있는 기존간판은 정비, 자진철거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장 가능. 신성기획 TEL: (02)3141-3789 02)332-3786 H.P: 016)336-3786